



신선식품 급등
채감물가
고공행진
L1

metro®

Life

오세훈 시장
서남권 대개조
추진계획 발표
L5



- 정작 한국에서는 한국화가 소외를 받는데...

“미국과 일본이 우리를 폄하한 것이다. 침략자와 지배자는 가장 먼저 미풍양속을 제거한다. 그 영향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찾아야 한다. 한국화를 대학 입시 때만 그렇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교육만 빨라져도 훨씬 뛰어날 수 있다. 최근에 국악이 전 세계 주목을 받는다. 서양음악에 도레미파솔라시 7음계가 있다면, 한국전통음악에는 황중·대주·중려·임중·무역의 5음계가 있다. 색이 화려한 서양화와 달리 동양화에는 오방색이 있다. 더 강렬하고 포인트만 준다. 우리는 그런 훌륭한 문화를 모르고 서양 문화만 쫓고 있다.”

뛰어난 한국 문화 널리 알리고 배워야 대작도 '내 것' 아냐... 소유한 적 없어 작품 기증해 경주술거미술관 기틀 마련

- 지금도 경주에 머물며 유적들을 그림에 담는 이유가 있다.

“문명 발전과정을 보면, 신라의 서라벌은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이슬람 제국 바그다드, 당나라 장안과 함께 세계 4대 도시에 포함됐다. 도시유물로도 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다보탑, 석가탑, 첨성대는 세계 다른 곳에서 따라갈 수 없다. 지방에 유물로 내버려두고 있으니 분통터지는 일이다. 경주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다. 무한경쟁시대인데, 가진 것도 못 쓰는 꼴이다.”

지난 2022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어느 수집가의 초대-고 이견희 회장 기증 1주년 기념전'에 그의 불국설경이 걸렸다. 생존 화가의 작품이 전시된 건 박 화백이 유일했다. 이견희 회장은 생전 그를 존경했고 그의 작품을 아꼈다. 정기적으로 그에게 새 그림을 주문해, 한 때 '이견희 전속 화가'로도 불렸다. 작품의 가치는 이미 천정부지로 뛰었지만 그는 작품을 소유한 적이 없다. 일평생을 담아 그린 대작도 '내 것'이 아니라 여긴다.

지난 2008년 박대성 화백은 경주에 자신의 작품 830점을 기증하며 '경주술거미술관'의 틀을 세웠다. 앞으로도 꾸준히 작품을 기증해 한두 개의 미술관을 추가로 여는 것이 목표다.



박대성 화백의 '불국설경'은 눈이 가득 쌓인 불국사의 절경을 가로 8m에 달하는 거대한 화폭에 담은 대작이다.

지난 2021년 술거미술관을 찾은 한 아이가 20m에 달하는 그의 작품을 밟아 훼손시킨 일화는 유명하다. 수리비만 1억이 넘는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그는 “그게 애들이지”라며 웃어 넘겼다.

- 일평생 그린 작품을 기증하는 건 아깝지 않나.

“나와 우리 가족보다 우리 국민, 동포가 더 중요하다. 오랜 수행을 통해 가급적 남들을 위해 살려고 노력해 왔다. 태어나면서 가져온 것도,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없는데 내 것이 어디 있나.”

- 미술관은 왜 세우려고 하나.

“뉴욕은 예술에 있어서는 정말 선진국이다. 그 곳에 살아보니 선진국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십시일반 힘을 모으고, 남을 위해 베풀 줄도 알아야 한다. 자기보다 가족을, 주변을, 사회를 생각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도 그런 이유다.”

- 현대미술을 배우러 간 곳에서 선진문화만 배웠다.

“사실이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를 유심히 살피다 보니 내 것을 기꺼이 내놓는 법을 배웠다. 예술에도 공공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과급력으로 좋은 작가도 나온다. 네 것 내 것 없이 살아야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 작품을 훼손한 것엔 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나.

“나도 손자, 손녀를 키운다. 달리 보면 우리 애들 아닌가. 아이가 모르고 한 것을 누가 탓할 수 있나. 수리비로 1억3000만원이 든다더라. 만일 돈을 받고 책임을 물었다면 미술관은 그 아이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이다. 작품은 그곳에 그대로 전시돼 있다. 아이가 밝은 발자국, 그 또한 역사다.”

'비경'에는 두 가지의 사전적 의미가 있다. '경치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곳' 그리고 '신비로운 경지'. 박 화백은 최근에도 커다란 설경 하나를 완성했다. 하루 25시간, 깨어서도 자면서도 온통 그림만 생각한다고 했다. 그렇게 산 날들이 하루 이를 쌓여 벌써 80년이 됐다. 소산의 비경을 쫓아 수행하던 외팔 화가는 마침내 비경의 경지에 올랐다. 그에게 남은 꿈이 있냐고 물으니 “그저 좋은 그림 하나 그리고 싶다”는 답이 돌아왔다. 소산은 아직 최고의 작품을 만나지 못했다.

꾸준히 기증해 미술관 추가 개관 목표 베푸는 마음으로 예술 공공성 확대 기여 끝 없는 창작... '최고의 작품' 만나고파

- 소산(小山)의 의미는 뭔가.

“내 이름이 클 대(大), 이룰 성(成)이다. 할아버지께서 그러셨다. 이름도 큰데 호까지 대산(大山)이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산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어디 있나.'”

- 더 좋은 작품은 아직 남은 건가.

“창작의 세계는 끝이 없다. 체육도 끝이 없이 기록을 넘어서는 과정이지 않나. 나는 아직 최고로 가는 과정에 있고, 그 작품을 위해 늘 연습하고 있다. 그림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럴 작정이다. 가급적 허튼 시간을 안 가지려 한다. 좋은 그림 하나 그리는 게 여전히 내 꿈이다.”

마지막 인사를 하며 그가 건네는 손을 잡았다. 긴 세월 붓을 잡고, 모든 고행을 홀로 견뎠을 오손손. 따뜻하고 힘이 있는 악수였다. 거장의 온기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소산 박대성 화백

1945년 경북 청도 운문면 공암리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박대성 화백은 5살이 되던 1949년 여름, 운문산에 은거하던 빨치산에 의해 한쪽 팔을 잃었다.

이후 독학으로 전통 수묵화를 익힌 그는 대한민국의미술전람회(국전)에서 내리 8번 입선하고, 중앙미술대전에서 첫해에 입선, 2회에 대상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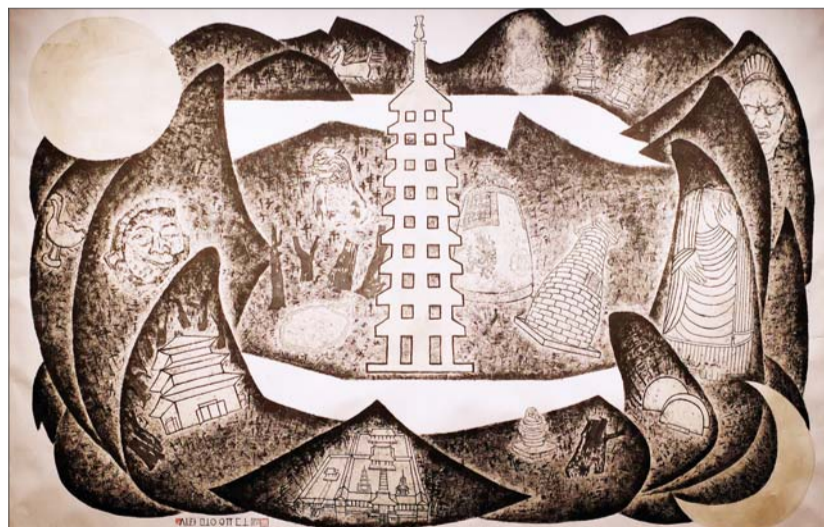
그의 작품은 1974년 대만 공작화랑을 시작으로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전세계에서 인정을 받았다.

1987년 독일 쾰른 파리나갤러리, 1988년 호암갤러리, 1997 파리 가나보부르갤러리, 2006년 가나아트센터, 2011년 중국 베이징 중국미술관, 2013년 터키 이스탄불 마르마리대학교 갤러리, 2015년 미국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 미술관 개인전 등에 초대됐다. 현재 그의 작품 대부분은 술거미술관에 전시돼 있다. 1999년 경주에 정착한 그는 유적, 문화재를 보며 새롭게 역사를 탐구했고 2015년 회화 435점, 글씨 182점, 벼루 먹 213점 등 모두 830점을 술거미술관에 기증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에도 선정돼 화업이 정리되고 있다.

박대성 화백의 작품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다음달 24일까지 열리는 개인전 '소산비경'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앞서 베를린 전시를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하버드대 한국학센터, 다투머스대 후드미술관,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메리워싱턴대 등 총 8곳의 해외기관에서 전시한 그는 이번 기념전에서 상릉비경과 금강설경, 신라몽유도 등을 전시한다.



'신라몽유도'



'현울'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이정후, 28일 MLB 시범경기 데뷔... 1번 중견수 출전 /사진 뉴시스
▲김하성, MLB 시범경기 3연속 안타... 타율 0.750

▲EPL 에버턴, 승점 삭감 10점서 6점으로 감경
▲영국 매체 “손흥민, 토트넘과 새 계약 논의...올여름 공식 협상”



▲'혼다 타이랜드 공동 3위' 김세영, 女골프 세계랭킹 42위 도약 /사진 뉴시스
▲PGA 투어 코그니전트 클래식 29일 개막...임성재·김주형 등 출